

황선우 “박태환 넘었다는 표현 맞지 않아”

부다페스트에서의 역경을 통해 세계무대에 자신을 확실히 각인한 황선우(19·강원도청)는 더 높은 목표를 위해 달리겠다고 다짐했다.

‘선배’ 박태환(33)과의 직접 비교에 대해서는 아직 같이 달리면서 자세를 낮혔다.

황선우는 29일 오전 서울 CGV 청담씨네시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22 국제수영연맹(FINA)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대회 소감과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영화관에서 치러진 이번 간담회에는 수십명의 취재진이 몰려 황선우를 향한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황선우는 21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두나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1분44초47로 터치패드를 찍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경영 선수가 세계선수권에서 입상한 것은 2011년 상하이 대회 박태환의 자유형 400m 금메달 이후 11년 만이다.

자유형 200m로 범위를 좁히면 2007년 벨버른 대회 박태환의 동메달 이후 15년 만에 나온 메달이다.

황선우는 “세계선수권을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 호주에서 전지훈련

기자간담회에서 소감 밝혀... “은메달 뜻깊어”
“가장 크게 와닿은 것은 운영 늘었다는 점”



2022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선수권대회 자유형 200m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황선우가 29일 서울 CGV 청담씨네시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까지 진행했는데 은메달이라는 값진 결과를 얻어서 뜻깊다”고 돌아봤다.

지난해 도쿄올림픽에서는 경험 부족을 여실히 노출하며 높은 단계에

오를수록 오히려 페이스가 떨어져 아쉬움을 남긴 황선우는 이번엔 이상적인 힘 배분으로 페이스를 소화했다.

예선에서 1분45초79(전체 2위)로 몸을 풀었고, 준결승에서 1분45초46으로 예선 기록을 0.33초 앞당겼다. 최종 순위가 결정되는 결승에서는 모든 힘을 쏟았다.

“세계선수권에서 가장 크게 와 닿은 것은 운영이 늘었다는 점”이라며 “도쿄에서는 경험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 예선부터 오버 페이스를 했는데 이번에는 예선, 준결승, 결승에서 기록을 조금씩 줄여가며 페이스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황선우가 세계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2000년대 중반부터 10여년 간 전성기를 구가했던 박태환과의 비교는 자연스러운 수순이 됐다. 자유형 100m와 200m 기록은 황선우가 박태환보다 빠르다. 황선우는 “박태환 선수 수영계의 한 획을 그은 엄청난 대단한 선수다. 넘었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면서 “나도 더 열심히 훈련해서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 올림픽 등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싶다”고 말했다.

/뉴스시스

부활한 이승우...대표팀에 승선하나

올 시즌 K리그1 8골로 득점 공동 4위

내달 동아시아컵 차출 가능성...태극마크 관심

부활한 ‘코리안 데시’ 이승우(24·수원FC)가 벤투호에 재승선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승우의 골 폭풍이 거세다. 지난 25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2 18라운드 수원 삼성과의 홈 경기에서 득점포를 가동하며 수원FC의 3-0 완승을 견인했다.

4경기 연속 득점으로, 시즌 8호 골에 성공한 이승우는 엄원상(울산), 김대원(강원)과 득점 공동 4위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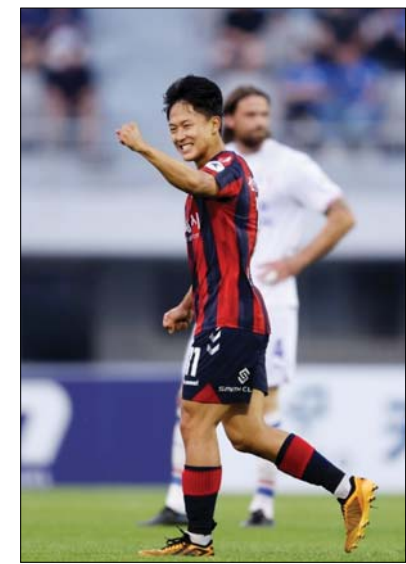
이승우의 활약에 수원FC는 올 시즌 첫 3연승 행진을 달렸다.

매 경기 득점 장면도 인상적이다. 지난 21일 포항 스틸러스와 경기에서 선 코너킥 찬스에서 환상적인 오른발 발리골을 터트렸다.

2004년 독일과 친선경기에서 라 이언킹 이동국이 성공한 발리슛을 연상하게 했다.

국제축구연맹(FIFA)도 이승우의 환상골에 주목했다.

지난 23일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승우의 포항전 발리골을 소개하며 “K리그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K리그가 우리를 데 그해 이승우의 골이 ‘푸스카스상’으로 어떤지 물었다”고 적었다.



푸스카스상은 FIFA가 전 세계에서 1년 동안 터진 골 중 가장 멋진 골을 넣은 선수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한국 선수로는 손흥민(토트넘)이 2019~2020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16라운드 번리전 ‘70m 슈퍼골’로 2020년 수상한 바 있다.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인 이승우는 이탈리아, 포르투갈, 벨기에 무대를 전전하다 출전 기회를 얻기 위해 올해 수원FC 유니폼을 입고 국내 무대에 진출했다. /뉴스시스



KLPGA 제14대 홍보모델 화보 공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에서 활약하는 톱 스타들의 홍보모델 화보 사진이 공개됐다. 골프 팬들의 온라인 투표를 통해 선정된 제 14대 KLPGA 홍보모델은 김재희(21·메디힐), 박민지(24·NH투자증권), 박현경(22·한국토지신탁), 송가은(22·MG새마을금고), 안지현(23·메디힐), 이가영(23·NH투자증권), 이소미(23·SB저축은행), 임희정(22·한국토지신탁), 장하나(30·BC카드), 조아연(22·동부건설), 허다빈(24·한화큐셀) 등 11명의 선수다. /KLPGA 제공

김하성, 12경기 만에 멀티히트...팀은 역전패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김하성(27)이 12경기 만에 멀티히트를 때려냈다. 그러나 팀의 역전패로 웃지는 못했다.

김하성은 29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체이스필드에서 열린 2022 메이저리그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경기에 8번 타자 3루

수로 선발 출전, 4타수 2안타 1득점을 올렸다.

김하성이 한 경기에서 2경기 이상의 안타를 뽑아낸 건 지난 15일 시카고 컵스전(4타수 2안타) 이후 12경기 만이다.

올 시즌 멀티 히트는 10번째다.

KOVO, 남녀 대표팀에

2억3000만원 추가 지원키로

한국배구연맹(KOVO)이 올림픽 진출이라는 목표를 향해 뛰고 있는 남녀 대표팀을 위한 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KOVO는 29일 제18기 제7차 이사회를 열고 남녀 대표팀 추가 지원을 의결했다.

KOVO는 올림픽 진출을 위해 세계랭킹 관리가 더욱 중요해진 만큼 다음달 서울에서 개최되는 2022 국제배구연맹(FIVB) 펠리너컵 남자대회의 선전 및 2023 발리볼네이션스리그(VNL) 여자대회 국내 유치 추진 등 랭킹 포인트 획득에 힘을 보태고자 남자 대표팀에 1억3000만원, 여자 대표팀에 1억원을 주기로 했다.

총 2억3000만원은 대한배구협회에 국제 경쟁력 강화 목적으로 지원되는 비용 외 추가금이다. 또 계약서 조항을 규약에 편입하고 규정에 들어가는 용어 변경 등의 목적으로 일부 내용을 개정 및 보완했다.

광주체육고 김가현, 국가대표 선발

‘Sofia 2022세계 청소년태권도선수권대회’서 우승

광주체육고등학교 소속 김가현(2년) 학생이 지난 13~16일 강원도 영월에서 개최된 한국 중·고등학교 태권도연맹이 주최한 ‘Sofia 2022 세계 청소년태권도선수권대회’ 및 제11회 아시아 청소년태권도 선수권대회 파견 국가대표 최종선발전’에 참가해 국가대표로 최종 선발됐다.

29일 광주체육고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체급별 1위 선수는 세계대회에, 2위 선수는 아시아대회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최종선발전으로 국내의 우수한 선수들이 대거 참가해 자웅을 겨뤘다.

광주체육고 김가현(2년) 선수는 결승전 -55Kg 체급 강자 대전체육고 채윤희 선수와의 대결 또한 일



방적인 경기로 진행됐다. 1회전 열골 들어차기 선취점을 시작으로 7:1승, 2회전 상단 돌려차기와 들어차기 열골 득점으로 점수 차를 벌리며 15:3로 승리해 ‘Sofia 2022 세계 청소년태권도선수권대회’에 출전하는 태극마크를 획득했다.

/김도기 기자

2022 행복해남!

해남형 ESG로 살기 좋은 해남을 만들어가요!

탄소 중립도시 완성
청정해남

환경 Environment

기후변화 대응 | 친환경 | 탄소저감

안전망 구축
함께해남

사회 Social

안전망 구축 | 경제활력 제고 | 교육·공동체 육성

공정한 윤리경영
청렴해남

지배구조 Governance

청렴한 공직문화 | 혁신과 참여행정 | 건전재정